'히치'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정립과 대안모색 시급

지난 23일 새벽 1시 30분 우리학교 여학생이 축제 준비를 마치고 후배 남학생과 함께 트럭을 '히치'하여 귀가하려다가 남학생은 구타 당한뒤 버려지고 여학생은 트럭에 탔던 20대 남자 네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히치'하는 학생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피해자가 우리학교 학생이라는 점, 또 지방소재 대학들의 열악한 교통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현재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와 총학 측은 이렇다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버스운행을 마친 뒤 12시까지만이라도 신갈까지의 셔틀버스가 운행 된다든지, 또는 교내나 그 주변에 학생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학교측은 이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총학생회의 경우 이번 사태를 해석함에 있어 유감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그간 끊임없이 제기하였던 교통문제의 해결에 학교당국과 정부가 소홀히 한 결과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별다른 해결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무엇보다 앞서 지적되는 것은 우선 지방소재 캠퍼스의 열악한 교통사정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은 교통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너욱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들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멀게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수원캠퍼스와 용도 만만치 않다.

일부 학생의 경우 대중 교통수단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히치'에 의존하고 있고 운이 좋으면 하루쯤 즐겨보자는 목적하에 '히치'에 매달리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학교이미지의 실추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마땅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우선 모든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히치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만 할 것이다. 교통수단이 즐비한데도 굳이 히치를 일삼는 몰불건을 연출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은 전 '대학인'의 자존심을 생각할 때 '즐기는 히치문화'에 대한 생각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또

교통편 있어도 편한 하교위해 '히치'

범교적인 인식 전환과 대안 모색 절실

정이다. 학교버스와 학교까지 들어오는 몇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학교로 들어오는 교통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나마 평일과 심야에는 심야 좌석버스라든가 택시와 같이 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설립초기인 80년대 초반보다는 교통사정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들은 교통에 관한 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너욱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들은 재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멀게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수원캠퍼스와 같은 지방소재대학의 재학생들은 차편이 끊긴 심야라든가 학교버스 및 대중교통수단의 배차시간이 비교적 긴 낮시간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무료편승 여행, 이른바 '히치 하이크'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히치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과생되는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일부 학생의 경우 대중 교통수단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시간에도 '히치'에 의존하고 있고 운이 좋으면 하루쯤 즐겨보자는 목적하에 '히치'에 매달리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들의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학교이미지의 실추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히치문화' 자체의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한가지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히치' 학생들로 인해 교문앞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다.

교문앞에 늘어서 있는 '히치' 학생들은 늦은 오후 시간에 그 수가 대폭 증가하는데 이는 각종 버스와 자가용의 도로진입시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쉽게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인근에 영통지구의 건설을 앞두고 있다. 학내 모든 관계자들은 영통지구가 들어선다면 교통문제나 캠퍼스타운문제등 현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영통지구 건설까지 학생들이 무담해야 하는 사고 위험은 당연히 한 정책자들은 이것을 밖의 문제가 아닌 안의 문제로 인식해야만 한다.

이런 인식이 선행 된 후에 현재의 '히치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카풀 등하교'의 중제도 있을 것이고 카풀 등·하교제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대기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기존 스쿨버스의 운행을 다소 연장한다거나 마지막 배차의 경우만이라도 늘린다거나 하는 방법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충격적인 사건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히치문화'를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할 시기이다.

〈박경화 記者〉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안 이 준 (법대 명예학수)

▲라창식(법과대학 기능직) : 50만원 ▲이태원(의대 의학과 교수) : 1백80만원 ▲진용우(전 문리대 영문과 교수) : 5백만원 ▲유지홍(의대 과대 교수) : 3백만원 ▲최부병(치과대 교수) : 3백만원 ▲이기태(문리대 생물과 교수) : 1백50만원 ▲김윤희(문리대 생물과 교수) : 1백50만원 ▲국제교류위원회(소림기공 강좌 수익금) : 88만4천원 ▲안병영(서울캠퍼스 총무과 기능직) : 60만원 ▲이준규(사과대 회계과 교수) : 2백만원 ▲박원규(사과대 회계과 교수) : 2백만원 ▲한동환(경희중 교사) : 30만원 ▲박문수(경희중 교사) : 50만원 ▲심규영(사과대 회계과 교수) : 1백50만원 ▲김광철(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이궁호(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이기수(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이상래(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최유진(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박상전(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조록현(총무과 관리직) : 60만원 ▲백평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 4백만원 ▲신광일(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3백만원 ▲김동수(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3백만원 ▲권무일(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김경만(서울캠퍼스 총무과) : 1백50만원 ▲변복만(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30만원 ▲김재철(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1백만원 ▲정태하(10회 동문 보교방문 준비위원회 위원장) : 1천7백20만원 ▲조한국(치과대 교수) : 3백만원 ▲신제원(치과대 교수) : 2백만원 ▲박중석(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50만원 ▲김용복(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50만원 ▲이옥현(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1백만원 ▲경희45주년 기념 부용발표 실행위원회(위원장 : 박명숙) : 5백만원 ▲최영규(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강화자(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신용영(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강동옥(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백호현(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30만원 ▲전계석(공대 전자공학과 교수) : 2백만원 ▲김정주(체대 체육과 교수) : 2백만원 ▲이종희(체대 체육과 교수) : 2백만원 ▲안이준(법대 명예교수) : 2천만원 ▲정동진(체대 교무주임) : 1백20만원 ▲신현대(한의대 교수) : 3백만원

1천2백여명 출연 22억 달성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임천규(의대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김춘택 유족대표 송병기(한의대·한의과)교수, 천진규 : 2천만원 ▲김유기(총무과 관리직) : 50만원 ▲조남원(총무과 관리직) : 30만원 ▲박종일(총무과 관리직) : 30만원 ▲김정식(총무과 관리직) : 50만원 ▲김종규(문리대 지리과 교수) : 1백50만원 ▲박춘식(총무과 차량주임) : 1백만원 ▲박수영(법대 행정과 교수) : 2백만원 ▲민병순(치과대 교수) : 3백만원 ▲박남수(치과대 교수) : 3백만원 ▲이상철(치과대 교수) : 3백만원 ▲김경만(서울캠퍼스 총무과) : 1백50만원 ▲변복만(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30만원 ▲김재철(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1백만원 ▲정태하(10회 동문 보교방문 준비위원회 위원장) : 1천7백20만원 ▲조한국(치과대 교수) : 3백만원 ▲신제원(치과대 교수) : 2백만원 ▲박중석(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50만원 ▲김용복(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50만원 ▲이옥현(서울캠퍼스 총무과 관리직) : 1백만원 ▲경희45주년 기념 부용발표 실행위원회(위원장 : 박명숙) : 5백만원 ▲김규영(사과대 회계과 교수) : 1백50만원 ▲김광철(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이궁호(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이기수(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이상래(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최유진(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박상전(치대 치의과 교수) : 2백만원 ▲조록현(총무과 관리직) : 60만원 ▲백평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 4백만원 ▲신광일(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3백만원 ▲김동수(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3백만원 ▲권무일(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朔風

'남의 떡은 정말 큰가'

'가깝고도 먼나라'에서 '멀고도 먼나라'로 재조명되는 일본. 얼마전 일본 법무상 나가노의 망언으로 벌집쑤셔놓은 듯한 한반도의 언론과 국민들은 나시금 일본 성토대회를 가졌다. "개들은 안돼. 그리고 이웃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국가다"라는 평가와 함께 일본이 비밀리에 수집한 플루토늄의 용도에 무수한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이시간 한반도 위에서는 국경없는 '문화의 포탄'을 쏘아대는 일본의 위성방송이 우리를 비웃듯 우리들의 안방에서 여유작작하게 활개치고 있었다. 그리고 한술 더떠 흥청의 스타TV까지 가세, 선정적이고 어지러운 위성방송의 '국제화'를 우리는 앉아서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신세대의 패턴'을 모며 혀를 끌끌차며 세상을 한탄하던 지난 주에도 그들의 '반전'된 문화의 공략앞에선 우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화려한 개인기와 스타들의 경연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NBA농구, 경기장마다 기모노와 일장기가 그리고 일본국가가 버젓이 흘러나오는 스모경기가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안방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위성방송의 공격적인 문화침투는 '패륜'의 온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신세대에게서 더 극명하게 보여진다. 국적없는 패션과 스포츠에 대한 부분별한 맹종은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한 스포츠신문들의 경기상보나 우리격에 맞지않는 해외패션등 관련기사의 재미만을 추구한 상업주의가 한몫을 더거들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화'라는 명분아래 모일간지가 위성방송 프로그램까지 소개하고 있으니 그 광범위한 폐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정신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누드모델로 주기를 올렸던 미야자와 리에와 스모스타 다카노하나의 약혼과 파혼이 바다건너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뿐 얼마전부터는 다카노하나가 일본의 스모계 최고등급인 요코즈나에 오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가사거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닫지 위성중계로 스모의 인기가 한반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며칠전 이러한 사례를 꼬집는 모스포츠신문 기자의 칼럼에서 국적을 떠나 열광하는 우리들의 뒷모습을 재조명한 일이 있다. 여기서 그 기자는 우리들의 현재모습 즉 사회-경제-스포츠 등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예를 들며 지도층의 '두얼굴'을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지렛대를 잃은 우리들을 질타하고 있었다.

올해는 '국악의 해'이다. 그리고 월드컵-아시안게임등 굵직한 스포츠행사가 많이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국악의 해'라고 열광하지 않는다. 주최자나 참관자인 우리모두의 잘못이다. 번번한 국민적인 문화거리나 스포츠하나 제대로 못가진 우리, 기껏해야 지방색만 잔뜩 부풀려 놓은 프로야구에 매단된 우리의 모습. '발로민'의 전통과 자존심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수신도 안된 사람이 치국평천하 하겠다면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열광하고 아끼는 문화적 중요를 누린뒤 '남의 떡'을 넘보아야 하지 않을까.

(岩草)

교수동정

김영목교수 방미

【서울캠퍼스】▲김영목(음대·기악과)교수=5월 30일부터 6월3일까지 세계음악인협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이종수(한의대·한의학)교수=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차 독일 방문

【수원캠퍼스】▲오택렬(공과대·기계)교수=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연구는문 자료 준비차 대만 방문.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오리엔트시계공업=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6월 4일까지 237-5231연락, 공채 ▲한독약품(주)=신입사원 ○명, 회계·경영, 5월 31일까지 527-5132/4연락, 공채 ▲국민투자신탁=신입사원 ○명, 전공제한없음. 6월3일까지 561-2711연락, 공채 ▲고려씨엘생명보험=신입사원 ○○명, 전공제한없음. 6월 2일까지 598-0611/5연락, 공채 ▲에바스화장품=신입사원 ○명, 전공제한없음. 5월 31일까지 600-0132/3연락, 공채 ▲제텍스(주)=신입사원 ○명, 법대·정경대·수원, 6월17일까지 662-2571/3연락, 공채 ▲신한증권(주)=신입사원 ○명, 경력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6월 3일까지 368-8543/6연락, 공채 ▲대성목재=신입사원 ○명, 문리대1명, 정경대1명, 수원3명, 6월 4일까지 032)762-7111/21연락, 추천 ▲아남전자(주)=신입사원 ○명, 경영·회계·경제, 6월 6일까지 032)510-8561/2연락, 공채 ▲현대그룹=인턴 ○명, 경영2명, 경제1명, 회계1명, 무역1명, 6월2일까지 746-3232연락, 추천 ▲한국존슨(주)=마케팅부 ○명, 정경대, 5월 31일까지 544-2101/6연락, 공채 ▲(주)신한=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6월 30일까지 369-0122연락, 공채 ▲대한교원공제회=신입사원○명, 경영1명, 경제1명, 행정1명, 6월10일까지 783-0131연락, 공채 ▲샤니(주)인턴 ○명, 가정대1명, 정경대3명, 수원6명, 6월2일까지 233-8391연락, 추천 ▲동아오츠카(주)=신입사원 ○명, 경영·회계, 6월 4일까지 855-6711연락, 공채.

▲국군홍보관리소=신입사원 ○명, 국민1명, 신방1명, 5월 31일까지 754-1735연락, 추천 ▲전도(주)=신입사원 ○○명, 전공제한 없음. 5월31일까지 850-8304연락, 공채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김철웅(영문·2) ▲문현주(국문·2) ▲백현김(수학·4) ▲김상무(영문·4) ▲김억진(영문·92) ▲박순두(법학) ▲정상규(경영·4) ▲박보형(경제·2) ▲신병수(회계·1) ▲장경태(경영·2) ▲노지영(영교·4) ▲주영아(가관·1) ▲김지현(의본·2) ▲김오성(의예·1) ▲유정아(기악·3) ▲김경래(기악·1) ▲조동민(기악·2) ▲신규호(삼의원·505)

【수원캠퍼스】▲황수현(서반어·4) ▲최정명(경영·4) ▲이정빈(환경·4) ▲민경선(물리·2) ▲박은정(물리·1) ▲김일훈(우주·3) ▲양희연(유전·2) ▲권혁재(전산·1) ▲최장수(전산) ▲박성준(토목·4) ▲이동협(기계·2) ▲최백순(건축·1) ▲정용준(원자·4) ▲황원우(원자·1) ▲이수민(섬유·2) ▲남혜은(입학·3) ▲전민구(조경·3) ▲유수진(태권도) ▲전영식(태권도·1) ▲엄채원(축구) ▲신경희(축구)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지갑=▲정인창(화학·94) ◇학생증=▲문종열(대학원·회계)

【수원캠퍼스】◇지갑=▲김신(경영·86) ▲김정완(태권도·93) ▲류영준(건축·1)

동문모임

효원고 동문회

【서울캠퍼스】▲효원고=5월 30일 오후 5시 정문앞 ▲전일(여)고=6월 3일 오후 5시 정문앞 큰 나무 아래

【수원캠퍼스】▲가야·성모고=5월 30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세종고=6월 1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풍생고=6월3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우신고·금옥여고=6월 3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포항제철 메세지 종강편

끝없는 도전이 이어지는 곳, 포항제철 -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부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마케팅, 건설 및 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이동통신, 경영경제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영역에의 도전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도전의 여행을 떠나자!

대학인에게 있어 방학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 대학인의 특권 -
무한한 가능성은 도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만이 찾을 수 있는 것.
이번 여름방학에는 자신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 도전의 여행을 떠나 봅시다.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땀을 흘려 보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또다른 자신에게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매니아가 되어 컴맹이라는 장벽을 확실히 허물어 보는 것도
또 평소 높은 산과 같았던 학문을 정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끈기있게 여름의 시간을 젊음의 도전으로 불태워 보십시오.

자유로우면서도 방향감각을 잃지않는, 지혜로운 도전의 체험을 세워
실천해 본다면 방학이 끝날 즈음, 여러분은 자신만의 보물을 안은 채
당당히 캠퍼스를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철보국에서 통신보국으로
포항제철